

최근 중국학계의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2007~2016)*

孫 成 旭*

Ⅰ 국문초록 Ⅰ

이 글은 최근 10년 동안 중국학계의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 성과를 분석하였다. 1992년 한중수교 이래 중국에서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다. 최근 10년 동안에도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그동안 활발히 연구해 오던 기성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후속세대의 발전은 주춤한 상황이다. 중국학계에서 명청대 특히 청대 한중관계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가 여전히 전통적인 시각에서 기존의 연구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료의 발굴도 그 이전 보다 줄어들면서 연구에 대한 자극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관계사’연구는 상호 간 시각이 중요하고, 한국독립운동사 연구가 한중 간 활발한 학술교류를 통해 발전했듯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의 발전을 위해 한중 학술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제어] 근대 한중관계사, 종변관계 강화, 대한제국, 한국독립운동

Ⅰ 목 차 Ⅰ

- | | |
|-------------------|--------------------------|
| I. 머리말 | IV. 중국의 민국시기와 한국의 식민지 시기 |
| II. 병인양요에서 청일전쟁까지 | V. 정리와 제언 |
| III. 대한제국 시기 | |

I. 머리말

1992년 한중수교 이래 한국의 위상 변화와 함께 중국에서 한국사와 한중관계사 연구가 급증하였다. 延邊大學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한국사와 한중관계사 연구는 北京大學,¹⁾ 復旦大學,²⁾ 浙江大學³⁾ 등에 한국학 연

* 이 논문은 단국대학교 한중관계연구소에서 개최되었던 〈근현대 한중관계사 연구의 현재와 미래〉 학술회의에서 발표하였던 것을 보완, 정리한 것이다. 원고 완성에 도움을 주신 회의 토론자 김정현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 山東大學 歷史文化學院 專任講師 / son79@hanmail.net

구센터가 세워지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각 연구센터는 『韓國學論文集』, 『韓國研究論叢』, 『韓國研究』 등을 창간하고 한중관계사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中國朝鮮史研究會는 2009년부터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던 간행물들을 『朝鮮・韓國歷史研究』라는 이름으로 통일하여 정기적으로 會誌를 발간하고 있다.⁴⁾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중국학계의 한국사 관련 연구는 한국사 본연에 대한 연구보다 관계사를 중심으로 발전 중이다.⁵⁾

한중수교 이래 15년간 중국학계의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 성과와 흐름을 정리한 논문이 이미 여러 편 발표되었다.⁶⁾ 이들 대부분은 중국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자와 연구 성과의 증가, 새로운 자료의 발굴, 전통적 시각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중국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가 더 큰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렇다면 그 이후 10년 동안은 어떠한 발전이 있었을까. 이 글은 최근 10년간 중국학계의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 성과를 검토하여 지난 10년 동안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 향후 한중관계사 연구 발전을 위한 몇몇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 정치·외교 관련 논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⁷⁾ 검토 대상은 가장 최근에 정리된 『朝鮮半島研究文獻資料索引: 歷史學』⁸⁾에 수록된 논저와 중국의 대표적 학술 DB인 中國知網(CNKI) 검색을 통해 선정하였다.

본고는 근대 한중관계의 주요 변화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고 시기별로 중국학계의 연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근대 한중관계사 시기 구분⁹⁾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權赫秀는 “근대 중한관계사의 기본 내용을 적어도 국가 관계의 측면에서 전통적 조공체제가 근대적 의미의 조약관계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제1기를 1876년 「江華島條約」 체결부터 1885년 중일 「天津條約」 체결까지; 제2기를 1885년 거문사 건부터 1895년 「馬關條約」을 거쳐 1899년 「한청통상조약」 체결까지; 제3기를 「한청통상조약」 체결부터 1949년 중국과 북한의 국교 수교까지로 보았다.¹⁰⁾ 국가관계의 변화 차원에서 1, 2기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

1) 1991년 4월 前身인 朝鮮歷史文化研究所가 설립되었으며 1993년 9월 韓國學研究中心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http://web5.pku.edu.cn/ksc/page34.htm>(검색일: 2017. 1. 10).

2) 1992년 朝鮮韓國研究中心 설립. http://www.mpa.fudan.edu.cn/_s150/6760/list.psp(검색일: 2017. 1. 10).

3) 1993년 4월 韓國研究所 설립.

4) 中國朝鮮史研究會는 1980년 정식으로 설립되어 『朝鮮歷史譯叢(古朝鮮譯文集)』, 『朝鮮史通訊』, 『朝鮮史研究』, 『朝鮮歷史研究論叢』, 『中國朝鮮史研究』 등의 간행물을 출판한 바 있다. 『朝鮮・韓國歷史研究』은 2008년 제10집부터 시작되는데, 기존의 간행물을 『朝鮮・韓國歷史研究』의 전신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전에 출판된 간행물의 구체적 목록은 金成鎬, 『中國朝鮮史研究會會刊發表論文、資料目錄』, 『朝鮮・韓國歷史研究』第10輯, 2009을 참고.

5) 權赫秀, 「中國的朝鮮史研究與教學: 歷史的回顧與基於現實的展望」, 『朝鮮・韓國歷史研究』第13輯, 2013, 495, 498쪽.

6) 權赫秀, 「중국학계의 근대 중한관계사 연구현황에 대하여」,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해안, 2007; 陳向勝, 「최근 15년간 중국학계의 清朝와 朝鮮關係史에 대한 연구 논평」, 『이화사학연구』 37, 2008; 박상수, 「중국학계의 근현대 한중관계사 인식: 한중수교 이후의 연구시각」,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동북아역사재단, 2009; 權赫秀, 「最近三十年國內學界有關朝鮮半島近現代史研究綜述」; 李鵬, 「近代中朝宗藩關係研究述評」, 『朝鮮・韓國歷史研究』第10輯, 2011 등을 참고.

7) 邊境 문제는 근대 한중 간 정치·외교 문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만, 중국학계의 연구 성과를 다루고 있는 논문이 여러 편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변경 관련 연구는 다루지 않았다.

8) 姜秀玉 主編, 『朝鮮半島研究文獻資料索引: 歷史學』, 延邊大學出版社, 2015.

9) 근대와 현대의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고, 중국사와 한국사의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국근대사의 경우 과거 1840~1919년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1949년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는 중국학계의 연구 성과를 다루며 대부분의 연구가 중국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는 만큼 ‘근대 한중관계사’로 통일하여 기술한다.

10) 權赫秀, 앞의 논문, 2007, 413쪽; 權赫秀, 「關於近代中朝關係史的幾點認識」, 『東亞世界的裂變與近代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3, 9~12쪽.

더라도, 한일병탄 이후 한중관계가 공식 관계에서 비공식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청통상조약」 체결부터 1949년까지 하나의 시기로 본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박상수는 중국학계의 근현대 한중관계사 연구를 검토하면서, 근현대 한중관계의 전개를 제1기 개항~청일전쟁 이전; 제2기 청일전쟁~조선(대한제국)의 멸망; 제3기 일제강점기; 제4기 남·북한의 분립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인한 한중 관계의 단절과 적대관계로의 전환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의 동맹 관계가 성립한 시기로 나눴다.¹¹⁾ 이는 근대 한중관계사의 발전단계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1기부터 3기까지는 帝國主義의 확장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4기는 冷戰이라는 새로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중국의 항일전쟁 시기 국공합작과 내전으로 한중관계 또한 이념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4기의 시작을 3기 중반부터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본고는 한국 독립 이후 남·북한 분립 이전까지를 다룬 연구 성과만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1기의 기점을 조선의 개항이 아닌 병인양요로 한다. 병인양요 이전 한중관계가 외적 요인 없이 양자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병인양요 이후 양국관계가 본격적으로 서세동점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전통적 관계의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이다.¹²⁾

II. 병인양요에서 청일전쟁까지

이 시기에 관한 중국학계의 주된 관심사는 청의 조선 정책과 그로 인해 조청 간 전통적 ‘宗藩關係’가 어떻게 변질되었는가에 있다. 종변관계 변화는 19세기 제국주의의 확장 속에서 주동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 청은 서구열강의 세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에 서양과의 통상조약 체결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이후,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에 따른 조청 간 근대적 통상사무 처리 등을 통해 양국관계에 ‘變通’을 시도하면서도 전통적 종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선에 대한 ‘宗主權’을 강화하였다.¹³⁾ 1894년 발발한 청일전쟁은 조선을 둘러싼 세력 간 각축에 따른 ‘필연적’ 사건으로 인식되며, 「강화도조약」부터 청일전쟁에 이르는 시기의 한중관계는 청일전쟁의 前史로 이해되곤 한다.

중국학계의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런데 2007년 權赫秀가 「강화도조약」 체결과 청 정부는 무관하다는 王如繪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기면서¹⁴⁾ 논쟁이 일어났다. 王如繪는 「강화도조약」 체결 전후 청이 2차례에 걸쳐 조선에 咨文을 보냈는데 첫 번째 자문에 조약 체결을 권고하는 내용이 없었으며, 두 번째 자문이 조약 체결 이후 도착했고 李鴻章이 李裕元에게 보낸 서신도 조약 체결 이후에 도착했다는 점 등을 들어 청 정부와 조선의 「강화도조약」 체결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¹⁵⁾ 그러나 權

11) 박상수, 앞의 논문, 2009, 371~372쪽.

12) 權赫秀, 「丙寅洋擾와 中國 淸政府의 對應 研究」, 『白山學報』 65, 2003.

13) 楊軍·王秋彬,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14) 權赫秀, 「《江華條約》與淸政府關係問題新論: 兼與王如繪先生商榷」, 『史學集刊』 2007년 4期.

15) 王如繪, 「《江華條約》與淸政府」, 『歷史研究』 1997년 1期; 『近代中日關係與朝鮮問題』, 人民出版社, 1999, 50~59쪽.

赫秀는 조약 체결 이전 奏請世子冊封使로 청나라에 갔던 이유원이 당시 청 관원과의 접촉을 통해 청의 조선 정책을 파악했으며, 귀국 후 조약 체결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청이 파견한 세자책봉 칙사도 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王如繪는 당시 조선에 온 칙사의 활동을 검토하면서 「강화도조약」 체결에 영향을 끼친 면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權赫秀의 비판을 반박하였다.¹⁶⁾

權赫秀의 王如繪에 대한 비판은 근대 한중관계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權赫秀는 1876년 이전 병인양요, 신미양요로 인해 조선과 열강 사이 발생한 갈등에 있어 청은 ‘속국의 내정과 외교를 간섭’하지 않는다는 불간섭 정책을 폈으나, 「강화도조약」 이후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청 정부가 「강화도조약」을 용인하면서 근대적 조약관계가 전통적인 중조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하나의 외교 두 가지 체제(一個外交兩種體制, one diplomacy two system)’의 과도적 국면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¹⁷⁾ 반면 王如繪는 청조의 조선 정책 기조가 바뀌는 시점은 일본의 침략 의도가 드러나는 일본의 琉球 병합 이후로 보고 있다.¹⁸⁾

姜博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당시 청의 조선정책이 ‘소극적인 불간섭 정책’이었다는 기존 인식에 이의를 제기한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청의 역할을 분석하면서 청은 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朝貢關係體制’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청 정부가 보수적 태도를 유지하며 불간섭 정책을 펼쳤다는 기존의 시각을 반박한 것이다. 姜博의 주장은 전통적인 시각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청의 대응이 ‘적극적’이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¹⁹⁾ 소극적이었는가 적극적이었는가는 상대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조선 문제에 대한 청의 대응을 그 전후 시기와 비교해야 얼마나 적극적 이었는가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인양요 발발 당시 禮部尙書 萬青藜는 북경에 머물고 있던 조선 사절의 正使 柳厚祚를 만나 병인양요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고 열강의 침략에 대비할 것을 권했다. 姜博은 이것을 청 정부의 적극적 대처로 해석한다. 그러나 萬青藜는 조선 사신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만남에 응했지 주동적으로 접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사신에게 회견 사실에 대한 보안을 강조하였다. 게다가 柳厚祚가 귀국 후 李興敏이 대원군의 뜻에 따라 萬青藜에 私信을 보내 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萬青藜는 ‘人臣無外交’의 원칙에 따라 사사로운 교섭을 할 수 없다며 황제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로 볼 때, 조선 사무를 주관하던 萬青藜가 조선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기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²⁰⁾

‘하나의 외교 두 가지 체제’ 하에서 근대적 외교관계와 함께 지속되며 병존했던 전통적 조공관계에 대한 관심도 주목할 만하다. 權赫秀는 한중관계가 근대적 조약관계로 전환되는 과도적 국면에서 전통적 조공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²¹⁾ 이 시기 대부분 연구는 양국관계의 변화 양상에 집중되었지만, 조청 간 전통

16) 王如繪, 「再論《江華條約》與清政府: 兼答權赫秀先生」, 『東嶽論叢』 2011년 6기.

17) 權赫秀, 앞의 논문, 2013, 9쪽.

18) 王如繪, 『近代中日關係與朝鮮問題』, 人民出版社, 1999, 59~70쪽.

19) 姜博, 『洋擾中的天朝: 西方侵擾朝鮮與清政府的應對』, 山東大學 석사학위논문, 2016.

20) 孫成旭, 『十九世紀朝鮮赴京使臣의 “皇都經驗”』, 北京大學 박사학위논문, 2015, 157~160쪽.

21) 權赫秀, 「晚清對外關係中的“一個外交兩種體制”現象芻議」, 『中國邊疆史地研究』 2009년 4기.

적 조공관계는 1895년까지 지속되었으며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변하지 않고 유지된 부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孫豔姝는 이러한 주장에 영향을 받아 조선의 정기 및 비정기 대청사행 양상, 청조의 조선에 대한 回賜와 封賞 실태를 분석하였다.²²⁾ 그는 1895년 ‘朝貢關係’가 완전히 와해되기 전까지 중조 간 조공제도는 쇠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청조는 ‘宗藩封貢關係’를 공고히 하기 위해 조선에 대한 回賜와 封賞을 중요시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사절과 商團의 활동과 사절을 호송하는 청조 관원의 관리를 강화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과 결론에는 문제가 있다. 回賜와 封賞의 경우 청과 조선의 공식 문건에 양만 제시가 되어있지 하사품의 질이 어땠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리고 19세기 중후반 조선사신은 관방문헌에 기록된 만큼의 양을 받지 못했으며, 하사품 준비가 늦어져 귀국일자가 늦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²³⁾ 조공사절과 청조 관원에 대한 관리 강화도 청의 공식 기록에 남은 사건을 중심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강화한 듯 보이나 당시 ‘燕行錄’들을 살펴보면 조선사절에 대한 관리는 매우 느슨했으며 청조 관원의 기강도 상당히 문란했다. 근대 전환기 변하지 않고 지속된 조공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표면적인 연구는 오히려 시대상을 왜곡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국제법의 시각에서 조청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시도도 있었다. 張衛明은 ‘侵略-反侵略’, ‘충격(impact, 沖擊)-반응(response, 回應)’ 이론을 비판하면서 제국주의 침략에 청은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대응했으며 청의 주동성을 강조하였다.²⁴⁾ 그는 청의 국제법 수용과 발전을 1874년 일본의 대만침공 시기를 ‘萌芽期’, 청불전쟁 시기를 ‘發展期’, 19세기 8, 90년대 조선정착을 ‘高潮期’로 나누어 설명한다.²⁵⁾ ‘高潮期’에 청은 ‘국제법의 한계’를 넘어 조청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학계의 ‘침략-반침략’, ‘충격-반응’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과 맞물려 있으며,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고자 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국제법과 ‘萬國公法’을 混用하면서 19세기 국제법의 변화를 소홀히 하였다. 청 정부의 주동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당시 변화하고 있던 국제법 체제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張衛明이 청의 주동성을 강조하였다면 張禮恒은 조청관계에서 조선의 주동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임오군란의 처리 과정에서 金允植과 魚允中이 청에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면서 그동안 중국의 입장을 강조해 소홀히 했던 조선의 대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²⁶⁾ ‘관계사’ 연구에 있어 서로의 입장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자국의 시각만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큰 의미가 있다. 문제는 임오군란 당시 金允植과 魚允中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²⁷⁾ 그의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전형적인 중복 연구라 할 수 있다.

22) 孫豔姝, 「晚清中朝朝貢關係詳考」, 『史學月刊』 2011년 1기.

23) 孫成旭, 앞의 논문, 2015, 51~57쪽.

24) 張衛明, 「在宗藩體制與國際公法之間: 晚清中朝秩序的重新建構」, 『學術研究』 2011년 3기.

25) 張衛明, 『晚清對外交涉中的國際法運用』, 人民出版社, 2016, 194~195쪽.

26) 張禮恒, 「金允植、魚允中與“壬午兵變”的善後處理」, 『近代史研究』 2016년 5기.

27) 權錫奉, 「大院君被囚問題에 대한 再檢討(上)」, 『人文學研究』 3, 1976; 「大院君被囚問題에 대한 再檢討(下)」, 『人文學研究』 第4-5合輯, 1977; 沈渭濱, 「朝鮮“壬午兵變”與中韓關係述論(上)」, 『韓國研究論叢』 第2輯, 1996; 「朝鮮“壬午兵變”與中韓關係述論(下)」, 『韓國研究論叢』 第4輯, 1998.

새로운 시각이 돋보이는 논문을 위주로 살펴보았으나 일반적인 연구방식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한다. 임오군란,²⁸⁾ 갑신정변,²⁹⁾ 조리밀약,³⁰⁾ 거문도 사건,³¹⁾ 박정양 사건,³²⁾ 청일전쟁³³⁾ 등 양국 관계의 변화를推動한 주요 사건에 연구가 집중되었다. 이 중에서 조리밀약, 거문도 사건, 박정양 사건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다. 이는 ‘조선문제’를 조청관계 혹은 청일관계의 양자 관계에서 다자 관계로 보려는 시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일전쟁 연구를 예로 들면, 그동안 서구 열강과 청일전쟁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소홀한 편이었는데 청일전쟁 당시 미국과 프랑스의 입장을 다룬 논문 두 편이 나왔다. 崔志海는 청일전쟁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대응을 분석하여 미국이 펼친 ‘親日 政策’의 원인을 살펴보았다.³⁴⁾ 葛夫平은 프랑스 외교문서를 이용하여 청일전쟁 발발부터 종전 이후 사후 문제까지 프랑스의 대응을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러시아와 공조하면서 체결한 지 얼마 안 된 러시아-프랑스동맹을 공고히 하여 유럽에서 고립 상황을 탈피하려 노력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서남지역 진출을 위해 청일전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崔志海와 葛夫平의 연구는 조청관계를 직접 다루고 있지 않지만, 청일전쟁 전후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 속 한중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주요 사건 연구와 함께 연구가 집중된 분야는 한중관계와 관련 있는 주요 인물에 관한 연구이다. 조선정치의 중요한 立案者이자 정책을 주도했던 李鴻章³⁵⁾과 갑신정변 이래 駐朝鮮 商務委員을 맡아 적극적인 간섭

- 28) 張曉剛·國宇, 「“壬午軍變”前後的中日兩國對朝策略」, 『武漢大學學報(人文科學版)』 2013年2期; 範宇亮, 「壬午兵變影響芻議」, 『黑龍江史志』 2014年13期; 張靜, 「朝鮮大院君被囚保定與中朝宗藩關係的變化」, 『河北廣播電視大學學報』 2016年2期.
- 29) 王萌, 「1885年中日(天津條約)談判始末」,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胡春惠, 「從《袁世凱全集》看朝鮮的“甲申政變”」, 『朝鮮·韓國歷史研究』 第17輯, 2016.
- 30) 呂萍, 「簡論兩次朝俄密約事件與清政府的對應」, 『東北史地』 2007年3期; 潘曉偉, 「第一次俄朝“密約”事件新論」, 『當代韓國』 2011年3期; 「略論第一次俄朝密約事件」, 『韓國研究論叢』 第24輯, 2012; 陳開科, 「1886年李鴻章、拉德仁天津會談與中、俄朝鮮政策」, 『近代史研究』 2012年6期.
- 31) 楊豔, 「朝鮮巨文島事件及清政府的對策」,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馬維英, 「19世紀晚期中俄英在朝鮮半島的戰略角逐: 以“巨文島事件”為中心的分析」, 『黑龍江史志』 2010年19期; 「略論巨文島事件對東北亞局勢的影響」, 『學理論』 2011年27期; 郭海燕, 「巨文島事件與甲午戰爭前中日關係之變化」, 『文史哲』 2013年4期; 「有關《李鴻章全集》中朝鮮巨文島占領事件的史料考訂及其意義」, 『韓國研究論叢』 第27輯, 2014; 王志偉, 「巨文島事件對朝鮮半島地緣戰略地位的影響」, 『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3年4期; 趙欣, 「巨文島事件與東北亞國際格局的演變」, 『外國問題研究』 2015年2期.
- 32) 張磊, 「“朴定陽事件”與中朝宗藩關係的變化」,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陳紅民, 「晚清外交的另一種困境: 以1887年朝鮮遣使事件為中心的研究」, 『歷史研究』 2008年2期; 張禮恒·王偉, 「朴定陽事件’與中朝之間的外交紛爭」, 『當代韓國』 2010年3期; 張禮恒, 「袁世凱與“朴定陽事件”」, 『韓國研究論叢』 第25輯, 2013; 任洋洋·楊華國, 「朴定陽出使與美對中朝宗藩關係的認識」, 『紅河學院學報』 2014年6期.
- 33) 蔡明吉, 「試論甲午戰爭前夕圍繞朝鮮的中日外交交涉」,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楊岸昭, 「論甲午戰爭中清日陸軍鏖戰平壤」,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權赫秀, 「《馬關條約》第一款有關朝鮮問題內容的形成過程研究」, 『抗日戰爭研究』 2014年4期; 孫成旭, 「清代朝鮮最後赴京使團考」, 『歷史檔案』 2014年4期.
- 34) 崔志海, 「美國政府與中日甲午戰爭」, 『歷史研究』 2011年2期.
- 35) 宋慧娟, 「論清政府與《朝美修好通商條約》的締結」, 『吉林省教育學院學報』 2007年7期; 武雪彬, 「李鴻章的中日結盟觀」,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劉曉敏, 「李鴻章的勸導和1882年《朝美條約》的簽訂」,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方民鎬, 「李鴻章對朝鮮的“以夷制夷”政策與《朝美條約》的訂立」, 『東疆學刊』 2010年4期; 「李鴻章對朝政策研究」, 延邊大學出版社, 2013; 李曉光, 「李鴻章與《朝美修好通商條約》」, 『吉林省教育學院學報』 2010年12期; 高娟, 「甲午前二十餘年間李鴻章對朝鮮的措置」, 華中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王曉影, 權赫秀, 「近代轉型視野下的中朝關係: 李鴻章與李裕元書信聯係研究」, 『史林』 2013年3期; 張禮恒, 「李鴻章主持朝鮮外交事務的原因探析」, 『江蘇社會科學』 2015年5期; 郭海燕, 「李鴻章與近代中朝軍事通訊網的建立: 以架設朝鮮半島電報線為中心的研究」, 『聊城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5年6期; 張禮恒, 「李鴻章同意從朝鮮撤軍原因探析」, 『廣東社會科學』 2016年4期.

정책을 실행한 袁世凱³⁶⁾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기존 연구를 넘어선 새로운 관점의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들다. 이 두 인물 이외에도 陳樹棠,³⁷⁾ 曾紀澤,³⁸⁾ 何如璋,³⁹⁾ 黃遵憲,⁴⁰⁾ 張樹聲⁴¹⁾ 등에 관한 논문도 나왔는데, 심도 있는 연구라기보다는 그들의 조선활동을 정리한 기초적인 수준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경우 李鴻章이나 袁世凱와 같이 장기적으로 조선 사무에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이들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李鴻章을 중심으로 한 외교 실무 그룹에 관한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조선 정책에서 李鴻章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가 모든 일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했던 것은 아니다. 수많은 막료와 실무 외교관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건의가 李鴻章의 대조선 정책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이 ‘宗藩關係’를 강화하기 위해 펼친 적극적인 간섭 정책에 대한 평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청의 적극적인 간섭은 조선이 ‘宗藩關係’를 이탈하려는 힘을 키웠고 중국에는 조선을 상실하였다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속국’을 상실했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지, ‘중주권’ 강화의 명분이나 행위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갑신정변 이후 袁世凱가 조선에서 펼친 강압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馬勇은 만약 청 정부가 조선을 ‘중국의 세계질서’로 복귀시키고자 했다면 ‘유연한’ 전략을 펼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⁴²⁾ 중국은 근대 식민지를 경영한 경험도 없으며 식민지에서 철수한 경험은 더욱 없다고 얘기하면서 중국은 단지 전통적 ‘宗藩體制’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근대화에 대한 반성의 발로이지만, 19세기 후반 청 제국이 주변 국가를 상대로 한 행위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통찰이 빠져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는 많은 한국학자가 비판하는 ‘屬邦化’나 커크 라센(Kirk Larsen)이 주장하는 ‘비공식적 제국주의(British Informal imperialism)’⁴³⁾를 이해하기 힘들다. 최근 중국학계에서 글로벌 히스토리가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사의 맥락에서 중국의 역사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 시기 한중관계사 연구도 시각을 확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기존의 인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36) 楊濤, 「袁世凱在朝鮮的外交活動述評」, 『新鄉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7년 4期; 馬詩書, 邵文翠, 「論袁世凱在“壬午兵變”與“甲申政變”期間的作為」, 『黑龍江史志』 2008년 12期; 李曉光·趙偉, 「略論袁世凱駐朝期間清朝在朝鮮商務的發展及影響」, 『長春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8년 11期; 羅強, 「甲午戰爭前袁世凱對朝鮮幹涉及中朝宗藩體制的瓦解」, 『湖北第二師範學院學報』 2009년 5期; 李曉光, 「袁世凱對朝經濟干涉政策之透視(1885~1894)」, 『長春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9년 9期; 吳家奇, 「李鴻章和黃遵憲朝鮮觀比較研究: 以1882年之前為比較研究中心」,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10; 聶金凱, 「袁世凱在朝鮮的活動與近代中朝關係」, 東北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0; 白雲濤, 「早年袁世凱述論」, 『中國國家博物館館刊』 2013년 12期; 尤淑君, 「朝俄聯盟與袁世凱的廢王之計」, 『社會科學戰線』 2016년 7期.

37) 權赫秀, 「陳樹棠在朝鮮的商務領事活動與近代中朝關係(1883年10月~1885年10月)」, 『社會科學研究』 2006년 1期.

38) 權赫秀, 「曾紀澤有關朝鮮問題的外交活動及政策主張」, 『哈爾濱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1년 3期.

39) 戴东阳, 『晚清駐日使團與甲午戰前的中日關係1876-1894』,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2, 72~91쪽.

40) 張靜·吳振, 「清黃遵憲 <朝鮮策略> 與近代朝鮮的開放」, 『南開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7년 2期; 陳潮, 「黃遵憲與琉球, 朝鮮問題」, 『韓國研究論叢』 第15輯, 2007.

41) 張英傑, 「張樹聲與中朝關係」, 山東大學 석사학위논문, 2015.

42) 馬勇, 「甲午前清政府“朝鮮方略”再檢討」, 『社會科學輯刊』 2014년 6期.

43) Kirk W. Larsen, *Tradition, treaties, and trade: Qing imperialism and Chosŏn Korea, 1850~191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8.

Ⅲ. 대한제국 시기

대한제국 시기 양국관계를 다룬 논문은 많지 않다. 중국의 한국근대사 연구에서도 이 시기 연구가 가장 미흡하다. 최근 10년 동안 이 시기를 다룬 논문은 20편 안팎인데 주된 관심은 청일전쟁 이후 양국관계의 변화와 청의 한국병탄에 대한 인식에 집중되어 있다.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은 일본과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하였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하였다. 조청 간 전통적 ‘宗藩關係’가 완전히 청산된 것이다. 그러나 「시모노세키조약」은 조선이 배제된 채 청일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청관계가 근대적 ‘平等關係’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었다. 양국이 직접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간 인정을 할 때 평등한 국가관계가 형성된다. 청은 조선을 ‘半屬國’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고 전통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잔존하여 조선과 조약 체결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청 정부는 조선과 변용된 ‘貿易章程’의 형태로 외교관계를 맺길 원했다. 반면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국호로 바꾸고 강한 독립 의지를 표방하면서 과거의 ‘上國’과 조속히 정식 외교관계를 맺길 원했다. 1899년, 청은 러시아와 일본 등 열강과의 관계, 조선 내 華商 보호 등을 고려해 조선과 「韓淸通商條約」을 체결하였다. 尤淑君은 청일전쟁 이후 「한청통상조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협상과정에서 청에게 경제적 이익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으며, ‘名分的 秩序觀’의 입장에서 한중 양국 간 특수한 관계를 반복해서 강조해 왔다고 주장한다. 즉, 양국 간 종번관계가 청산되었음에도 전통적 관념이 양국관계에 여전히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⁴⁴⁾ 王志强은 조약 협상과정에서 청 정부가 영사 파견 및 국서 전달 불가 등의 입장을 보인 것은 “中韓朝貢關係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노력”이었다고 평가한다.⁴⁵⁾ 그의 평가는 과도한 면이 있지만, 기존의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진 않았다. 王志强과 尤淑君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陳尙勝은 ‘宗藩關係’에서 ‘邦交關係’로 전환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며 기존 연구는 정치관계의 변화에 집중한 반면 실질적 외교양상의 전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였다.⁴⁶⁾ 그는 「한청통상조약」 체결을 위해 조선에 파견되어 초대 駐大韓帝國 淸國公사를 역임한 徐壽朋의 활동을 분석하면서, 조약 체결 전후 외교 사안에 대한 실제 처리 과정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의 연구는 앞선 尤淑君, 王志强의 연구와 동일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조약 체결 전후 발생한 仁川 三里寨 중국 조계 내 한민 가옥 철거건, 민사소송인 彭姜安 건 등의 처리 과정을 통해 양국관계의 실질적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사실 이 두 안건은 이은자가 연구하여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⁴⁷⁾ 陳尙勝은 이은자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한국학계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예를 들어, 「한청통상조약」 5관에는 영사재판관과 관련된 聽審權 문제이다. 이은자는 “실제로 열강의 ‘일방적인’ 권리였던 청심권이 한중간 ‘대등한’ 조약관계가 형성되었던 시기에는 그야말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44) 尤淑君, 「甲午戰爭後的中朝關係」, 『山東社會科學』 2014년5期.

45) 王志强·劉楊, 「試論近代中韓關係的建立(1895~1899)」, 『長春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9년1期.

46) 陳尙勝, 「徐壽朋與近代中韓關係轉型」, 『歷史研究』 2013년3期.

47) 李銀子, 「大韓帝國時期 韓中間 民事訴訟의 實例: 彭姜安(1898~1900)을 中心으로」, 『동양사학연구』 100, 2007; 「仁川 三里寨 中國租界 韓民 가옥 철거 안건 연구」, 『동양사학연구』 118, 2012.

활용될 수 있었지만, 피고주의에 따라 자국민을 재판하였던 영사재판의 원칙에 따라 청심권의 활용도 한계를 갖게 되었다”⁴⁸⁾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계가 나타난 것은 청심권 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이는 구선희가 이은자의 논문을 평가하며 언급한 것처럼 “조약 문구 해석에서 상대국 간의 힘의 논리가 관철되었다”⁴⁹⁾고 이해될 수도 있다. 반면 陳尙勝은 徐壽朋의 외교활동은 국제법의 내세우는 국가의 ‘주권’과 ‘평등’의 이념을 준수했으며 국익을 추구하는 근대 외교의 목적을 비교적 잘 실현했다면서 긍정적 평가를 한다.⁵⁰⁾

1899년 「한청통상조약」으로 맺어진 대등관계는 1905년 한일 간 「을사늑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서 단절되었다. 대한제국이 북경에 설치한 공사관은 일본의 압박 하에 철수하게 되었고, 주대한제국 청국공사관은 영사관으로 격하되었다. 1910년에 이르러 일본의 한국병탄으로 국가 간 공식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權赫秀는 청 정부의 한국병탄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한국병탄을 추진하면서 청과 조선의 과거 특수한 관계와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였으며, 8월 29일 주일본 각국 대사에게 한국병탄 사실을 공포하기 하루 전 청 정부에 통보하였다. 한국병탄은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청 정부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청 정부는 일본에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으며 다른 국가의 대응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權赫秀는 이와 같은 대응은 중국의 “自顧不遑, 斷難干預”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병탄은 청 통치 집단의 위기의식을 고조시켰고 立憲을 촉진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⁵¹⁾ 한국병탄과 청말 입헌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한 李細珠도 한국병탄이 청말 입헌개혁을 가속화시켰으며, 1910년 9월 북경에 의회 예비기구인 資政院이 세워지고 11월 청 정부가 입헌준비기간을 9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⁵²⁾

대한제국 시기 한중관계에 관한 몇몇 연구를 살펴보았지만, 실제 논문 편수도 많지 않고 새로운 경향을 보이는 연구도 매우 드물다. 이는 石少穎이 “대한제국의 노력으로 한중은 형식상 평등한 대외관계를 맺었지만, 양국에 있어 실제적 의의는 크지 않았으며 당시 대한제국이 처한 위기로 볼 때 대청관계는 부차적일 수밖에 없었다”⁵³⁾고 평가한 것처럼 중국학계에 대한제국 시기 한중 정치관계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Ⅳ. 중국의 민국시기와 한국의 식민지 시기

1910~1945년 한중 간 정치관계에 관한 연구는 국민정부(전신인 광둥호법정부를 포함)와 대한민국 임시정

48) 李銀子, 「大韓帝國時期 韓中間 民事訴訟의 實例: 彭姜安(1898~1900)을 中心으로」, 213쪽.

49) 구선희, 「근대 한중관계사의 연구경향과 쟁점 분석」,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동북아역사재단, 2009, 202~203쪽.

50) 陳尙勝, 「徐壽朋與近代中韓關係轉型」, 70쪽.

51) 權赫秀, 「“自顧不遑, 斷難干預”: 清政府對日本吞並大韓帝國的認識與反應」, 『朝鮮·韓國歷史研究』第12輯, 2012, 208~209쪽.

52) 李細珠, 「日韓合並與清末憲政改革」, 『近代史研究』2011年4期.

53) 石少穎, 「試論近代朝鮮對清朝政策的演變(1863~1905)」, 『青海社會科學』2012年1期.

부의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중국 공산당과 조선 공산주의자 간 관계 연구도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항일전쟁 시기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 반면 임시정부와의 관계 연구는 광둥호법정부 시기부터 태평양 전쟁 종전 후 주화대표단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다수를 차지한다. 1992년 한중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양국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학계가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면서 국민정부와 임시정부 관계가 관심을 받았으며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2009년 4월에 상해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학술회의’도 이를 잘 반영한다.⁵⁴⁾ 학술회의의 주최자 중 한 명이었던 石源華는 발표 논문에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민족주의 시각에서 임시정부는 한국 반일독립운동의 구현이자 기치이며 상징이고, 민주주의 시각에서 임시정부는 한국 인민이 봉건 전제 통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기대와 선택 그리고 그 시도를 보여주며, 중한관계의 시각에서 임시정부는 중국 인민이 한국독립투쟁을 지원했던 대상이자 우호의 표상이었다”고 평가하였다.⁵⁵⁾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민정부 간 외교관계의 기원과 성격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임시정부가 손중산이 이끄는 광둥호법정부에 신규식을 파견하여 국서를 전달하고 외교관계를 맺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楊天石은 광둥호법정부가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실질적 관계’를 맺었다고 보며⁵⁶⁾, 陳岩冰은 양자가 정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중국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魏志江은 ‘비상국회’가 한국독립 승인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은 사실상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과정이라고 봤다.⁵⁷⁾ 당시 임시정부는 국가의 중요 구성요소인 영토를 상실했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국가로 볼 수 없으므로 광둥호법정부가 정식으로 임시정부를 승인하기 힘들었다. 그렇지만 손중산의 ‘실질적 승인’은 태평양 전쟁 종전까지 국민정부와 임시정부의 관계를 규정짓는 매우 중요한 근거로 다루어졌으며, 양자 관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시기적으로 보면 1931년 9.18 사변 이후부터 태평양 전쟁 종전까지 양자관계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한중수교 이래 한중관계가 긴밀해진 이유도 있겠지만, 일본에 아베 정권이 들어선 후 중일관계가 악화되면서 ‘抗日’정향이 더욱 강조되고 한중 공동항일의 경험에 주목받았다. 특히 2015년 중국의 ‘勝戰’ 70주년을 전후하여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으며, 2015년 8월 上海復旦大學에서 개최된 ‘한중 양국 공동 항일투쟁과 승전’과 ‘한국의 해방과 중국의 승전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6년 9월 심양에서 개최된 ‘일제의 만주침략(9.18) 85주년 및 중국 동북지역에서 전개된 항일전쟁에 대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이 시기 주된 연구대상은 광복군⁵⁸⁾, 조선의용대(군)⁵⁹⁾, 한·중 공산주의 진영의 합작⁶⁰⁾이었다.

54) 鄭繼永, 「“紀念大韓民國臨時政府創建90周年國際學術會議”綜述」, 『韓國研究論叢』 第21輯, 2009. 당시 학술회의에 발표된 논문은 2010년 논문집으로 중국에서 출판되었다. 石源華 主編, 『韓國獨立運動研究新探』,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

55) 石源華, 「論大韓民國臨時政府的歷史意義: 紀念大韓民國臨時政府創建90周年」, 『韓國研究論叢』 第21輯, 2009, 1쪽.

56) 楊天石, 「中韓愛國志士의 早期關係」, 『史學月刊』 2007년3期.

57) 魏志江, 「論大韓民國臨時政府與廣東護法政府的關係」, 『社會科學戰線』 2009年10期, 125쪽.

58) 魏兵兵, 「事與願違的援助: 國民政府與韓國光復軍之組建」,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年1期; 王世新, 『韓國光復軍在華東地區』, 廣西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7; 石建國, 「韓國光復軍官兵消費合作社問題研究」, 『韓國研究論叢』 第18輯, 2008; 趙娟, 「論韓國臨時政府在中國的武裝復國運動: 以光復軍在西安的活動爲中心」, 陝西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2; 蒲元·唐軍, 「韓國光復軍總司令部抗戰期間軍政活動述論」, 『寧夏社會科學』 2013年5期.

‘抗日戰爭期’⁶¹⁾ 한중관계 연구는 일반적으로 한중 간 우호와 협력을 강조한다.⁶²⁾ 이런 연구경향 속에서 양자 간 마찰과 갈등을 지적인 연구가 눈에 띈다. 협력 관계 속에서 마찰과 갈등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며 중국의 원조 역시 단순한 施惠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 張玉紅은 국민정부 초기 한국 독립운동 지원은 도의적인 차원이었으며, 항일전쟁 이후가 돼서야 중국이 지원을 강화하였고 한국 독립운동 세력 간 갈등 문제를 인식하고 통합되도록 노력하였는데 군사적으로 파벌을 가리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는 김구파를 중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국민당의 항일전쟁 전략에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⁶³⁾ 그리고 石建國도 조선의용대가 국민당 내의 ‘軍方’과 ‘黨方’ 간의 파벌 갈등 속에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지적하였다.⁶⁴⁾ 魏兵兵은 광복군 창건 과정에서 생긴 국민당과 임시정부의 갈등을 분석하였다.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광복군의 기본 성질에 인식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통한 국민정부와의 협력을 동등한 지위에서의 협력으로 인식한 반면, 국민정부는 광복군을 자신의 임무를 지원하는 하부조직 정도로 인식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된 국가로 볼 수 없으므로 국민정부와 동등한 관계의 군사합작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게다가 국민정부는 광복군을 통제 가능한 군사세력으로 인식하고 지원하였기 때문에 광복군과 이견이나 마찰은 불가피하였으며, 이는 양자관계를 점점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한다.⁶⁵⁾

‘갈등’을 다룬 연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우호와 협력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

- 59) 石建國, 「朝鮮義勇隊與中國國民黨」, 『韓國研究論叢』 第20輯, 2009; 朴英姬, 「朝鮮義勇隊의抗日活動及其歷史作用」, 『韓國研究論叢』 第20輯, 2009; 馬長林, 「朝鮮義勇隊의產生與發展」, 『韓國研究論叢』 第20輯, 2009; 朱芹, 「朝鮮義勇軍司令武亭將軍」, 『軍事歷史研究』 2009年2期; 甘露, 「朝鮮義勇隊在重慶」, 『重慶科技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11年7期; 張雷雷, 「朝鮮義勇軍與韓國光復軍的抗日鬥爭考實」, 『學理論』 2013年3期; 徐香順, 「試論朝鮮義勇隊的成立及意義」, 『黑龍江史志』 2013年19期; 『試論朝鮮義勇隊(軍)與中國人民的關係』,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14.
- 60) 彭懷彬, 「試論中國共產黨與東北地區在華朝鮮獨立運動的關係」, 『吉林省教育學院學報(學科版)』 2008年4期; 金洪素, 「東滿地區抗日民族統一戰線研究」,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08; 許永吉, 「論朝鮮共產黨滿洲總局的反日民族運動」, 『朝鮮·韓國歷史研究』 第12輯, 2012; 金成鎬, 「民族共產主義者在中國東北抗日鬥爭中的地位和貢獻」, 『世界歷史』 2012年3期; 黃潤浩, 「東北地區朝鮮共產主義者的“雙重使命”研究」, 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2012; 蘇營, 「抗日戰爭時期中國境內朝鮮人武裝隊伍的活動及其歸宿」, 北華大學 석사학위논문, 2015.
- 61) ‘항일전쟁기’는 1931년 9.18 사변부터 1945년 태평양 전쟁 종전까지를 의미한다. 중국에서 ‘항일전쟁기’는 9.18 사변을 기점으로 하는 ‘十四年抗戰’이나 1937년 7.7 사변으로 전면적 항전이 시작되는 ‘八年抗戰’을 펼친 시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2017년 1월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關於在中小學地方課程教材中全面落实“十四年抗戰”概念的函」에서 2017년부터 전국의 초·중·고 역사교과서에서 항일전쟁을 ‘十四年抗戰’으로 통일하여 서술하도록 규정하였다. ‘十四年抗戰’인가 ‘八年抗戰’인가에 대해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교육부의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논쟁에 대해서는 於興衛, 「爲什麼是“十四年抗戰”」, 『光明日報』, 2017年2月7日; 張海鵬, 「對教育部《通知》的質疑——“十四年抗戰概念”取代“八年抗戰”遠非史學界共識」, 2017, <http://www.92to.com/xuexi/2017/01-30/16835410.html> (검색일: 2017.5.25)을 참조할 수 있는데 “十四年抗戰”에 비판적 의견을 낸 張海鵬의 글은 거의 삭제되어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중국 내 논쟁과 상관없이, 제2차 국공합작으로 통일된 抗日抗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八年抗戰’이 타당하나, 한중관계의 전환이라는 점에서는 ‘十四年抗戰’가 더 의미를 갖는다.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의 虹口공원 의거는 중국 내 항일 여론을 환기시켰으며, 국민당의 한국 독립운동 세력에 대한 평가와 지원이 호전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 62) 이 시기 연구는 주로 한국독립운동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중국학계의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동향에 관해서는 윤휘탁, 「중국 關內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과 평가」, 『만주연구』 20, 2015을 참조.
- 63) 張玉紅, 「抗戰時期國民政府對韓國獨立運動派系矛盾的調處及其影響」, 『東疆學刊』 2009年4期.
- 64) 石建國, 「朝鮮義勇隊與中國國民黨」, 252쪽.
- 65) 魏兵兵, 「事與願違的援助: 國民政府與韓國光復軍之組建」, 92~96쪽.

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沈志華가 민국시기 중국과 북한 공산당 관계사 연구에 대해 제기한 문제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2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 양당 관계의 전개 과정 서술이 단순한 면이 있고 초기 양당 관계의 형성에 대해서는 재론이 필요하다. 둘째, 제3인터내셔널의 양당관계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1928년 12월 제3인터내셔널의 결의 뒤 ‘一黨一國’의 원칙에 따라 동북 지방에서 조선 공산당원의 중국공산당 입당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며, 그들은 ‘중국 혁명’과 ‘조선 혁명’을 함께 목표로 하는 ‘이중사명(雙重使命)’을 짊어졌다고 본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제3인터내셔널의 태도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⁶⁶⁾ 그는 기존 연구와 회고록, 러시아 당안, 중문으로 출판된 문헌 등 관련 사료를 폭넓게 검토해 기존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이중사명(雙重使命)’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2007년 길림성사회과학연구기금의 성과로 『中國朝鮮族革命鬭爭史』가 출간되었다.⁶⁷⁾ 權赫秀는 “중국 최초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선족 혁명투쟁을 서술한 대형 학술 저작”⁶⁸⁾이라고 자평한 이 책을 비판하였는데, 그 핵심은 ‘이중사명’과 관련이 있다. 그는 우선 ‘중국 최초’라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였다.⁶⁹⁾ 이전에 ‘조선족 혁명투쟁’을 다룬 연구논저가 다수 있었으며, 『中國朝鮮族革命鬭爭史』는 기존 연구를 제대로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점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수많은 연구에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 反帝抗日抗爭을 벌인 것은 중국 혁명과 조선 민족의 ‘해방’을 위한 ‘이중사명’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中國朝鮮族革命鬭爭史』는 “중국 혁명을 목표로 하면서 조선독립을 위한 조선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조선족의 이중사명 혁명은 없었다”면서 조선족의 ‘이중사명’을 부정한다.⁷⁰⁾ 그러나 權赫秀는 ‘이중사명’은 “중국 조선족 혁명투쟁사, 특히 항일투쟁역사의 근간이 되는 특징이며, 중국공산당도 중국조선족의 ‘이중성과’ 그 ‘이중사명’을 인정하였다. 이는 중국공산당 지도하에 벌인 조선족 혁명투쟁이 중국에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전제였다”⁷¹⁾면서 ‘이중사명 부정론’을 반박한다. 延邊大學의 金成鎬도 『中國朝鮮族革命鬭爭史』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2012년 「朝鮮民族共產主義者在中國東北抗日鬭爭中的地位 and 貢獻」을 발표하여 조선족의 ‘이중사명’을 강조하였다.⁷²⁾ 이러한 ‘이중사명’의 강조에 대해 『中國朝鮮族革命鬭爭史』의 저자들은 반박하는 글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조선족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언제든 논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66) 沈志華, 「同命相連: 朝鮮共產黨人融入中共的歷史過程(1919~1936)」, 『社會科學戰線』 2015년 2기, 68~69쪽.

67) 楊昭全·車哲九·金春善·金哲洙·安華春, 『中國朝鮮族革命鬭爭史』, 吉林人民出版社, 2007. 이 책은 연변인민출판사에서 한국어본으로도 출간되었는데 필자는 아직 구해보지는 못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염인호의 「재만조선인 항일투쟁사 서술과 ‘중국 조선족’의 탄생」(『한국학연구』 28, 2012)을 참고.

68) 楊昭全·車哲九·金春善·金哲洙·安華春, 앞의 책, 2007, 10쪽.

69) 權赫秀, 「“雙重使命”是中國朝鮮族革命史的根本特性」, 『滿族研究』 2009년 4기.

70) 楊昭全·車哲九·金春善·金哲洙·安華春, 앞의 책, 2007, 4쪽.

71) 權赫秀, 앞의 논문, 2009, 127쪽.

72) 金成鎬, 「朝鮮民族共產主義者在中國東北抗日鬭爭中的地位 and 貢獻」, 『世界歷史』 2012년 3기. ‘이중사명’에 관해서는 金成鎬가 한국에서 발표한 「중국 동북조선민족 항일혁명투쟁의 ‘이중사명’과 현실에서의 ‘一史兩用’, ‘歷史共享’ 문제」(『한국학연구』 29, 2013)를 참고할 수 있다.

V. 정리와 제언

이상의 연구 성과 외에 중국학계의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은 한중수교 이래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해온 일련의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논저를 출판한 것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한중관계사 연구자인 楊昭全(1933~)은 2009년 자신의 ‘중조, 중한 관계사’ 연구를 회고하는 논문을 발표하였고,⁷³⁾ 2013년 연구 성과를 모은 문집을 출판하였다.⁷⁴⁾ 2012년에는 2000년 초고를 완성하고 2004년 탈고한 『金日成傳』 3권을 홍콩 香港亞洲出版社에서 출간하였다. 그의 연구역정을 통해 개혁개방 이래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중관계사 연구 경향 변화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연구자는 權赫秀(1962~2017)이다.⁷⁵⁾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東北師範大學과 遼寧大學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과 중국에서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한국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모아 2007년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으로 출간하였고, 2013년 중국어로 발표한 글 33편을 모아 『東亞世界的裂變與近代化』를 출간하였다.⁷⁶⁾ 『東亞世界的裂變與近代化』는 ‘근대 동아시아 관계사 연구’와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 관계사’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료에 천착하여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나의 외교 두 가지 체제’의 틀에서 근대 한중관계를 분석하였다.⁷⁷⁾ 게다가 한국학계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한중 학술교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청대 한중관계사의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聊城大學의 張禮恒(1963~)은 2012년 『在傳統與現代性之間：1626~1894年間的中朝關係』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서론, 2장 연구사 정리, 제6장 결론을 제외한 본문은 총 3장으로 4, 5장이 근대 한중관계를 다루고 있다. 내용은 비교적 충실하나 기존의 근대화론이나 ‘충격-반응’론, 청의 ‘중주권’ 강화라는 전통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일학계의 연구 성과를 거의 참조하지 않았다.

중국 한국독립운동사의 대표적 연구자인 復旦大學의 石源華(1949~)는 학술서 다수를 출간하였다. 우선 자신의 연구를 정리한 『韓國獨立運動與中國關係論集』 2권을 2009년 출간하였고,⁷⁸⁾ 같은 해 임시정부 주화 대표단을 본격적으로 다룬 『大韓民國臨時政府駐華代表團研究』을 출간하였다.⁷⁹⁾ 가장 큰 성과는 그가 한국독립운동과 중국 관계 연구를 시작한 이래 염원해 온 『韓國獨立運動與中國關係編年史』를 완성한 것이다. 그는 중국 내 자료를 정리하여 『韓國獨立運動與中國』,⁸⁰⁾ 『中國共產黨援助朝鮮獨立運動紀事(1921~1945)』⁸¹⁾를 출

73) 楊昭全, 『金日成傳』, 香港亞洲出版社, 2010.

74) 楊昭全, 『楊昭全文集』,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013.

75) 본 논문을 투고한 후 얼마 안 있어 權赫秀 선생님이 9월 10일 갑작스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본고의 익명 심사자 한 분도 심사평에서 부고 소식을 전하며 哀悼를 표했다. 선생님의 연구에 많은 영향을 받은 후학으로 痛歎을 금할 수 없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76) 權赫秀, 『東亞世界的裂變與近代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3, 9~12쪽.

77) 그의 치밀한 접근은 그가 편지한 史料選集인 『近代中韓關係史料選編』(世界知識出版社, 2008)에서도 잘 드러난다.

78) 石源華, 『韓國獨立運動與中國關係論集』, 民族出版社, 2009.

79) 石源華, 『大韓民國臨時政府駐華代表團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9.

80) 石源華, 『韓國獨立運動與中國』, 上海人民出版社, 1995.

관한 적 있다. 여기에 새로 발굴된 중국 내 자료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중문 자료 중심으로 3권 1,709페이지에 달하는 한국독립운동과 중국 관계 편년사를 펴냈다. 이 책은 중국학계의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노작이다. 靑島科技大學의 石建國(1964~)도 90년대 이래 발표해 온 한국독립운동사 관련 논문 17편을 묶어 『中國境內韓國反日獨立復國運動研究』을 펴냈다.⁸²⁾

기존 학자들의 왕성한 활동에 비해 신진학자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박상수는 2009년 중국학계의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 경향과 시각에 관한 글에서 “최근 근현대 한중관계사 분야를 전공으로 한 석·박사 학위 논문이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신진 학자들의 더욱 진전된 연구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⁸³⁾고 전망한 바 있지만, 현 시점에서 여전히 기대에 머물고 있다. 근대 한중관계사 석·박사 학위 논문이 많이 나왔지만, 석사논문이 대다수이며 박사학위 논문은 많지 않다.⁸⁴⁾ 게다가 최근 10년 간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연구자 중 학술지에 양질의 논문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이도 많지 않다.

최근 10년간 중국학계의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는 수교 이래 활발하게 활동해오던 학자들이 축적된 연구를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후속세대의 발전은 주춤한 상황인 것이다. 중국 학계 내에 명·청시기 특히 청대 한중관계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중국의 청사공정과 구미의 신청사 연구의 영향,⁸⁵⁾ 2001년 『燕行錄全集』이라는 대형 사료의 출판⁸⁶⁾과 ‘주변에

81) 石源華, 『中國共產黨援助朝鮮獨立運動紀事(1921~1945)』,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0.

82) 石建國, 『中國境內韓國反日獨立復國運動研究』, 浙江大學出版社, 2014.

83) 박상수, 앞의 논문, 2009, 409쪽.

84) 최근 10년 간 근대 한중관계사와 한국근대사 관련 박사학위논문이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규모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편이며, 양국 간 정치·외교 관계를 다룬 논문은 3~4편에 불과하다. 金雄鶴, 『中國東北地區朝鮮人抗日鬭爭研究(1910~1945)』, 中國人民大學 박사학위논문, 2007; 金東春, 『20世紀初基督教在中國延邊朝鮮民族社會的演變及其影響』, 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2007; 朴今海, 『日本對東北朝鮮人的殖民主義教育政策研究』, 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2007; 李洪錫, 『日本駐中國東北地區領事館警察機構研究: 以對延邊地區朝鮮民族的統治爲中心』, 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2007; 姜秀玉, 『近代東亞中朝日三國的社會變革研究: 以戊戌變法、甲申政變和明治維新之比較爲中心』, 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2007; 朴哲, 『乙巳五條約研究』, 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2008; 盛利, 『清朝對朝鮮外交體制變通研究: 以19世紀60年代至19世紀80年代中期爲中心』, 山東大學 박사학위논문, 2009; 潘曉偉, 『俄國對朝鮮政策研究1860~1910』, 吉林大學 박사학위논문, 2009; 張玉紅, 『中國國民政府與大韓民國臨時政府關係研究』, 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2010; 鄭光日, 『日偽時期東北朝鮮族“集團部落”研究』, 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2010; 毛吉康, 『近代朝鮮半島中立問題研究(1882~1905)』, 復旦大學 박사학위논문, 2010; 白基龍, 『一戰後中韓民族主義的比較研究』, 湖南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11; 盧壽亨, 『中韓“安那其主義”運動比較研究』, 南京大學 박사학위논문, 2012; 黃潤浩, 『東北地區朝鮮共產主義者的“雙重使命”研究』, 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2012; 朱芹, 『體系與依附: 李承晚外交獨立思想研究』, 復旦大學 박사학위논문, 2012; 南慧英, 『俄國的朝鮮移民政策研究(1860~1917)』, 吉林大學 박사학위논문, 2012; 梁志善, 『天津地區韓人社會研究(1910~1946)』, 復旦大學 박사학위논문, 2012; 姜豐裕, 『民國時期日本對東北水田投資研究: 以朝鮮移民水田開發爲中心』, 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2012; 李錦秀, 『大韓民國臨時政府重慶時期憲政法研究(1940~1945)』, 西南政法大學 박사학위논문, 2013; 辛聖鳳, 『朝鮮人的滿洲移民史研究』, 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2013; 倪屹, 『“間島問題”研究』, 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2013; 張鍾月, 『清代以來鴨綠江流域移民研究(1644~1931)』, 東北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15; 周國瑞, 『清朝與朝鮮司法合作和交涉研究: 以1882至1894年在朝華商相關案件爲中心』, 山東大學 박사학위논문, 2016.

85) 김형중, 「최근 중국에서의 청대사 연구 동향의 분석: 특히 한중 관계사와 국경 문제에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한국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2009; 「최근의 명청대 한·중관계사 연구와 ‘신청사’ 연구동향의 분석과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53, 2016.

86) 중국학계의 연행록 연구 성과를 회고한 논문이 여러 편 있을 정도로 연행록을 중심으로 한 조청관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林麗, 「“燕行錄”研究綜述」, 『炎黃文化研究』 第7輯, 鄭州, 大象出版社, 2008; 裴英姬, 「〈燕行錄〉の研究史回顧(1933~2008)」, 『臺大歷史學報』 43, 2009; 李學堂, 「燕行錄의 研究現況과 展望: 中國 研究成果를 中心으로」, 『동방한문학』 50, 2012; 王禹浪, 程功, 劉加明, 「近二十年中國《燕行錄》研究綜述」, 『哈爾濱學院學報』 2012年1期; 吳政緯, 「從中朝關係

서 보는 중국'의 관심 증대⁸⁷⁾로 청대 한중관계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반면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는 여전히 전통적인 시각에서 기존의 연구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료의 발굴도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료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의 사료를 철저히 소화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시각에 대한 고민과 일국사적 관점을 벗어나 시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근대 양국 관계에 있어 협력과 갈등의 양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중 간 학술교류를 통해 치열한 논쟁을 확대하고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본고는 중국학계의 연구 경향을 한국학계에 소개하기 위한 것이고 '외부자'의 시각에서 이러한 지적이 무의미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학계의 한국독립운동사 연구가 한중수교 이후 양국 간 활발한 교류 속에서 발전했듯 양국의 근현대 한중관계사 연구수준의 제고와 진전된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연구 성과를 중국에 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중국학계의 연구논저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한국의 연구 성과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다수의 한중관계사 연구자들이 한국어를 하지 못해 한국어로 된 연구논저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延邊大學의 조선족 학자들, 한국 유학과 등 한국어에 능통한 학자들이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물론 최근 근대 한중관계사를 전공분야로 삼는 박사생에게 어학 능력을 강조하는 추세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박사생 자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연구 성과를 중국어나 영어로 번역해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학술 교류를 강화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둘째, 한국 내 사료를 새로운 발굴하여 중국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규장각이나 장서각에는 한중관계사 연구를 증대 및 심화시킬 수 있는 사료가 적지 않다. 새롭게 사료를 발굴하지 않더라도 이미 발간된 유의미한 사료를 중국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거나 중국의 학술기관과 협력하여 보강 출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김용구의 주도로 정리 출판되고 있는 『근대한국외교문서』는 근대 한국 외교사의 주요 사건과 관련 된 서구열강, 일본, 중국의 외교문서를 수록하고 있어 이를 중국에 널리 소개한다면 한중관계사 연구자뿐만 아니라 외교사 연구자들도 큰 관심을 보이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중국학계와의 학술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프로젝트에 적지 않은 중국학자들이 참여하면서 한중 학술교류가 긴밀했지만, 교류의 폭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근대 대외관계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관계사가 양국 간 이익의 충돌과 부합에서 전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대국의 대외정책 속에서 한중관계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객관적' 연구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민족주의 시각을 탈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양국의 충돌이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논쟁은 한중관계사의 쟁점을 부각하며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줄 것이다.

史看明清史研究的新面向：以《燕行錄》爲中心》，『臺灣師大歷史學報』第51期，2014；金柄瑊·金剛，「對中國《燕行錄》研究的歷時性考察」，『東疆學刊』2016年1期。

87) 復旦大學文史研究院 編：『從周邊看中國』，中華書局，2009；葛兆光：『想像異域：讀李朝鮮漢文燕行文獻割記』，中華書局，2014；王鑫磊：『同文書史：從韓國漢文文獻看近世中國』，復旦大學出版社，2015。

〈참고문헌〉

1. 연구서

- 戴東陽,『晚清駐日使團與甲午戰前的中日關係 1876~1894』,社會科學文獻出版社,2012.
- 丁小明 編撰,『《譚盾》拾餘: 晚清駐朝鮮使臣叢劄及詩文稿』,國家圖書館出版社,2015.
- 方民鎬,『李鴻章對朝政策研究』,延邊大學出版社,2013.
- 姜秀玉 主編,『朝鮮半島研究文獻資料索引: 歷史學』,延邊大學出版社,2015.
- 金健人·楊昭全主 編,『大韓民國臨時政府在杭州』,國際文化出版公司,2008.
- 潘曉偉,『俄國與朝鮮關係問題研究 1860~1910』,黑龍江大學出版社,2013.
- 裴京漢,『從韓國看的中華民國史』,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4.
- 權赫秀 編著,『近代中韓關係史料選編』,世界知識出版社,2008.
- 權赫秀,『東亞世界的裂變與近代化』,中國社會科學出版社,2013.
- 石建國,『中國境內韓國反日獨立復國運動研究』,浙江大學出版社,2014.
- 石源華 主編,『韓國獨立運動研究新探』,社會科學文獻出版社,2010.
- 石源華,『大韓民國臨時政府駐華代表團研究』,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9.
- 石源華,『韓國獨立運動與中國關係論集』,民族出版社,2009.
- 石源華,『中華民國外交史新著』,社會科學文獻出版社,2013.
- 石源華·蔣建忠 編著,『韓國獨立運動與中國關係編年史』,社會科學文獻出版社,2012.
- 宋成有,『中韓關係史(現代卷)』(第2版),社會科學文獻出版社,2014.
- 孫科志 編,『中國近代期刊與韓國』,國際文化出版公司,2010.
- 王如繪,『近代中日關係與朝鮮問題』,人民出版社,1999.
- 王元周,『小中華意識的嬗變』,民族出版社,2013.06.
- 楊軍·王秋彬,『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6.
- 楊昭全,『金日成傳』,香港亞洲出版社,2010.
- 楊昭全,『楊昭全文集』,吉林人民出版社,2013.
- 楊昭全·車哲九·金春善·金哲洙·安華春,『中國朝鮮族革命鬭爭史』,吉林人民出版社,2007.
- 于沛,『世界史研究』,福建人民出版社,2006.
- 于沛·周榮耀 主編,『中國世界歷史學30年: 1978~2008』,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8.
- 張甫雄 主編,『大韓民國臨時政府與鎮江』,江蘇人民出版社,2016.
- 張禮恒,『在傳統與現代性之間: 1626~1894年間的中朝關係』,社會科學文獻出版社,2012.
- 張玉紅,『中國國民政府與大韓民國臨時政府關係研究』,延邊大學出版社,2012.
- 朱芹,『獨立與依附: 李承晚之外交獨立思想』,社會科學文獻出版社,2014.

2. 연구논문

- 구선희, 「근대 한중관계사의 연구경향과 쟁점 분석」,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동북아역사재단, 2009.
- 權錫奉, 「大院君被囚問題에 대한 再檢討(上)」, 『人文學研究』 3, 1976.
- 權錫奉, 「大院君被囚問題에 대한 再檢討(下)」, 『人文學研究』 第4-5合輯, 1977.
- 陳尙勝, 「최근 15년간 중국학계의 清朝와 朝鮮關係史에 대한 연구 논평」, 『이화사학연구』 37, 2008.
- 金成鎬, 「중국 동북조선민족 항일혁명투쟁의 ‘이중사명’과 현실에서의 ‘一史兩用’, ‘歷史共享’ 문제」, 『한국학연구』 29, 2013.
- 金衡鍾, 「최근 중국에서의 청대사 연구 동향의 분석: 특히 한중 관계사와 국경 문제에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한국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2009.
- 金衡鍾, 「최근의 명청대 한·중관계사 연구와 ‘신청사’: 연구동향의 분석과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53, 2016.
- 李銀子, 「大韓帝國時期 韓中間 民事訴訟의 實例: ‘彭姜安’(1898~1900)을 中心으로」, 『동양사학연구』 100, 2007.
- 李銀子, 「仁川 三里寨 中國租界 韓民 가옥 철거 안건 연구」, 『동양사학연구』 118, 2012.
- 權赫秀, 「중국학계의 근대 중한관계사 연구현황에 대하여」,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해안, 2007.
- 박상수, 「중국학계의 근현대 한중관계사 인식: 한중수교 이후의 연구시각」,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염인호, 「재만조선인 항일투쟁사 서술과 ‘중국 조선족’의 탄생」, 『한국학연구』 28, 2012.
- 윤휘탁, 「중국 關內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과 평가」, 『민주연구』 20, 2015.
- 白雲濤, 「早年袁世凱述論」, 『中國國家博物館館刊』 2013年12期.
- 蔡明吉, 『試論甲午戰爭前夕圍繞朝鮮的中日外交交渉』,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07.
- 陳潮, 「黃遵憲與琉球、朝鮮問題」, 『韓國研究論叢』 第15輯, 2007.
- 陳紅民, 「晚清外交的另一種困境: 以1887年朝鮮遣使事件爲中心的研究」, 『歷史研究』 2008年2期.
- 陳開科, 「1886年李鴻章、拉德仁天津會談與中、俄朝鮮政策」, 『近代史研究』 2012年6期.
- 陳尙勝, 「徐壽朋與近代中韓關係轉型」, 『歷史研究』 2013年3期.
- 崔志海, 「美國政府與中日甲午戰爭」, 『歷史研究』 2011年2期.
- 崔志鷹, 「李東寧與韓國臨時政府的關係」, 『同濟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0年4期.
- 範宇亮, 「壬午兵變影響芻議」, 『黑龍江史志』 2014年13期.
- 方民鎬, 「朝鮮‘壬午兵變’後李鴻章對朝政策的新變化」, 『朝鮮·韓國歷史研究』 第14輯, 2013.
- 方民鎬, 「李鴻章對朝鮮的“以夷制夷”政策與《朝美條約》的訂立」, 『東疆學刊』 2010年4期.

- 甘露,「朝鮮義勇隊在重慶」,『重慶科技學院學報(社會科學版)』2011年7期。
- 甘露,「馮玉祥與韓國獨立運動」,『當代韓國』2012年2期。
- 甘露,「重慶時期韓國臨時政府的外交活動論述」,『唐山學院學報』2013年2期。
- 高娟,『甲午前二十餘年間李鴻章對朝鮮的措置』,華中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2。
- 郭海燕,「巨文島事件與甲午戰爭前中日關係之變化」,『文史哲』2013年4期。
- 郭海燕,「李鴻章與近代中朝軍事通訊網的建立:以架設朝鮮半島電報線為中心的研究」,『聊城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5年6期。
- 郭海燕,「有關《李鴻章全集》中朝鮮巨文島占領事件的史料考訂及其意義」,『韓國研究論叢』第27輯, 2014。
- 韓詩俊·鄭繼永,「韓國臨時政府與韓國光復軍在韓民族史上的地位」,『韓國研究論叢』第21輯, 2009。
- 何燕文,『金允植〈領選日記〉研究:以其中的筆談資料為中心』,浙江工商大學 석사학위논문, 2016。
- 賀文君,『近代中朝宗藩關係的終結及其平等國家關係的建立』,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12。
- 胡春惠,「從《袁世凱全集》看朝鮮的“甲申政變”」,『朝鮮·韓國歷史研究』第17輯, 2016。
- 許永吉,「論朝鮮共產黨滿洲總局的反日民族運動」,『朝鮮·韓國歷史研究』第12輯, 2012。
- 許永吉,「論東北地區朝鮮共產黨人加入中共問題」,『朝鮮·韓國歷史研究』第13輯, 2013。
- 黃潤浩,『東北地區朝鮮共產主義者的“雙重使命”研究』,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2012。
- 姜博,『洋擾中的天朝:西方侵擾朝鮮與清政府的應對』,山東大學 석사학위논문, 2016。
- 姜秀玉,『近代東亞中朝日三國的社會變革研究:以戊戌變法、甲申政變和明治維新之比較為中心』,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2007。
- 解瑩,『晚清運用國際法維護宗藩體制的理念與實踐』,山東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1。
- 金成鎬,「“九一八”事變後中國共產黨關於東北朝鮮民族抗日運動的方針政策」,『朝鮮·韓國歷史研究』第17輯, 2016。
- 金成鎬,「朝鮮民族共產主義者在中國東北抗日鬥爭中的地位和貢獻」,『世界歷史』2012年3期。
- 金成鎬,「民族共產主義者在中國東北抗日鬥爭中的地位和貢獻」,『世界歷史』2012年3期。
- 金成鎬,「試論朝鮮民族早期共產主義運動和共產黨的建立」,『韓國研究論叢』第24輯, 2012。
- 金成鎬,『中國朝鮮史研究會會刊發表論文、資料目錄』,『朝鮮·韓國歷史研究』第10輯, 2009。
- 金成鎬·夏潤國,「“九一八事變”前中國共產黨關於東北朝鮮民族抗日運動的方針政策」,『朝鮮·韓國歷史研究』第16輯, 2015。
- 金洪素,『東滿地區抗日民族統一戰線研究』,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08。
- 金雄鶴,「抗日戰爭時期中國共產黨與朝鮮反日民族解放運動:以關內地區為中心」,『朝鮮·韓國歷史研究』第12輯, 2012。
- 金雄鶴,「論析中國共產黨對朝鮮反日獨立運動的認識:以“七七事變”前為中心」,『朝鮮·韓國歷史研究』第11輯, 2011。
- 金雄鶴,『中國東北地區朝鮮人抗日鬥爭研究(1910~1945)』,中國人民大學 박사학위논문, 2007。

- 李鎬秀, 『大韓民國臨時政府重慶時期憲政立法研究(1940~19450』, 西南政法大學 박사학위논문, 2013.
- 李俊, 『試論甲午中日戰爭前朝鮮政府的外兵借入論議及其外兵撤離交涉研究』,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14.
- 李鵬, 「近代中朝宗藩關係研究述評」, 『朝鮮·韓國歷史研究』 第10輯, 2011.
- 李細珠, 「日韓合並與清末憲政改革」, 『近代史研究』 2011年4期.
- 李曉光, 「李鴻章與《朝美修好通商條約》」, 『吉林省教育學院學報』 2010年12期.
- 李曉光, 「袁世凱對朝經濟干涉政策之透視(1885~1894)」, 『長春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9年9期.
- 李曉光·趙偉, 「略論袁世凱駐朝期間清朝在朝鮮商務的發展及影響」, 『長春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8年11期.
- 梁志善, 『天津地區韓人社會研究(1910~1946)』, 復旦大學 박사학위논문, 2012.
- 劉曉敏, 『李鴻章的勸導和1882年〈朝美條約〉的簽訂』,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09.
- 劉哲, 『試論〈朝美修好條約〉簽訂的背景與影響』, 黑龍江大學 석사학위논문, 2015.
- 柳明花, 『從申櫟的〈沁行日記〉再議〈江華島條約〉』,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13.
- 羅強, 「甲午戰爭前袁世凱對朝鮮干涉及中朝宗藩體制的瓦解」, 『湖北第二師範學院學報』 2009年5期.
- 呂萍, 「簡論兩次朝俄密約事件與清政府的對應」, 『東北史地』 2007年3期.
- 馬長林, 「朝鮮義勇隊的產生與發展」, 『韓國研究論叢』 第20輯, 2009.
- 馬詩書·邵文翠, 「論袁世凱在“壬午兵變”與“甲申政變”期間的作為」, 『黑龍江史志』 2008年12期.
- 馬維英, 「19世紀晚期中俄英在朝鮮半島的戰略角逐: 以“巨文島事件”為中心的分析」, 『黑龍江史志』 2010年19期.
- 馬維英, 「略論巨文島事件對東北亞局勢的影響」, 『學理論』 2011年27期.
- 馬勇, 「甲午前清政府“朝鮮方略”再檢討」, 『社會科學輯刊』 2014年6期.
- 毛吉康, 『近代朝鮮半島中立問題研究(1882~1905)』, 復旦大學 박사학위논문, 2010.
- 倪屹, 『“間島問題”研究』, 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2013.
- 聶金凱, 『袁世凱在朝鮮的活動與近代中朝日關』, 東北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0.
- 潘曉偉, 「第一次俄朝“密約”事件新論」, 『當代韓國』 2011年3期.
- 潘曉偉, 「略論第一次俄朝密約事件」, 『韓國研究論叢』 第24輯, 2012.
- 潘曉偉, 『俄國對朝鮮政策研究1860~1910』, 吉林大學 박사학위논문, 2009.
- 彭懷彬, 「試論中國共產黨與東北地區在華朝鮮獨立運動的關係」, 『吉林省教育學院學報(學科版)』 2008年4期.
- 蒲元·唐軍, 「韓國光復軍總司令部抗戰期間軍政活動述論」, 『寧夏社會科學』 2013年5期.
- 朴英姬, 「朝鮮義勇隊的抗日活動及其歷史作用」, 『韓國研究論叢』 第20輯, 2009.
- 朴哲, 『“乙巳五條約”研究』, 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2008.
- 權赫秀, 「《江華條約》與清政府關係問題新論: 兼與王如繪先生商榷」, 『史學集刊』 2007年4期.
- 權赫秀, 「“兩截體制”下的朝鮮駐天津督理通商事務衙門: 兼談19世紀後期朝鮮王朝的對華外交及其文化背景」, 『社會科學輯刊』 2015年1期.
- 權赫秀, 「“雙重使命”是中國朝鮮族革命史的根本特性」, 『滿族研究』 2009年4期.

- 權赫秀,「“自顧不遑,斷難干預”:清政府對日本吞並大韓帝國的認識與反應」,『朝鮮·韓國歷史研究』第12輯,2012.
- 權赫秀,「《馬關條約》第一款有關朝鮮問題內容的形成過程研究」,『抗日戰爭研究』2014年4期.
- 權赫秀,「曾紀澤有關朝鮮問題的外交活動及政策主張」,『哈爾濱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1年3期.
- 權赫秀,「陳樹棠在朝鮮的商務領事活動與近代中朝關係(1883年10月~1885年10月)」,『社會科學研究』2006年1期.
- 權赫秀,「關於朝鮮共產主義者支持中國共產黨創建工作的若干史實」,『朝鮮·韓國歷史研究』第14輯,2013.
- 權赫秀,「晚清對外關係中的“一個外交兩種體制”現象芻議」,『中國邊疆史地研究』2009年4期.
- 權赫秀,「最近三十年國內學界有關朝鮮半島近現代史研究綜述」,『朝鮮·韓國歷史研究』第10輯,2009.
- 權赫秀,『中國的朝鮮史研究與教學:歷史的顧與基於現實的展望』,『朝鮮·韓國歷史研究』第13輯,2013.
- 任洋洋·楊華國,「朴定陽出使與美對中朝宗藩關係的認識」,『紅河學院學報』2014年6期.
- 邵雍,「新四軍與朝鮮義勇軍」,『當代韓國』2008年4期.
- 申恩定,『抗日戰爭時期大韓民國臨時政府與中國關係研究(1937~1945)』,山東大學 석사학위논문,2016.
- 沈志華,「同命相連:朝鮮共產黨人融入中共的歷史過程(1919~1936)」,『社會科學戰線』2015年2期.
- 沈志華·崔海智,「朝鮮共產黨早期歷史再述:國內篇(1925~1935)」,『韓國研究論叢』第29輯,2015.
- 沈志華·崔海智,「朝鮮共產黨早期歷史再述:國外篇(1919~1924)」,『韓國研究論叢』第27輯,2014.
- 盛利,『清朝對朝鮮外交體制變通研究:以19世紀60年代至19世紀80年代中期為中心』,山東大學 박사학위논문,2009.
- 施政,『試論袁世凱派駐朝鮮和清政府對朝鮮全面干涉政策的實施』,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2010.
- 石建國,「朝鮮義勇隊與中國國民黨」,『韓國研究論叢』第20輯,2009.
- 石建國,「韓國光復軍官兵消費合作社問題研究」,『韓國研究論叢』第18輯,2008.
- 石少穎,「試論近代朝鮮對清朝政策的演變(1863~1905)」,『青海社會科學』2012年1期.
- 石源華,「韓國獨立運動與中國關係史研究的新課題:關於編纂《韓國獨立運動與中國關係編年史》的若干問題」,『韓國研究論叢』第24輯,2012.
- 石源華,「論大韓民國臨時政府的歷史意義:紀念大韓民國臨時政府創建90周年」,『韓國研究論叢』第21輯,2009.
- 宋成有,「近十年來中國的安重根研究與評述」,『韓國學論文集』第18輯,2010.
- 宋成有,「日本朝野的“滿蒙情結”與中韓聯合抗戰」,『當代韓國』2008年2期.
- 宋慧娟,「論清政府與《朝美修好通商條約》的締結」,『吉林省教育學院學報』2007年7期.
- 蘇營,『抗日戰爭時期中國境內朝鮮人武裝隊伍的活動及其歸宿』,北華大學 석사학위논문,2015.
- 孫科志,徐凡,「19世紀末以來中國的韓國史研究」,『當代韓國』2014年4期.
- 孫成旭,「1884至1895年朝鮮駐津公館考論」,『歷史教學(下半月刊)』2014年11期.
- 孫成旭,「清代朝鮮最後赴京使團考」,『歷史檔案』2014年4期.
- 孫成旭,「清末大韓帝國駐清公使館考論」,『北京社會科學』2015年4期.
- 孫成旭,『十九世紀朝鮮赴京使臣的“皇都經驗”』,北京大學 박사학위논문,2015.

- 孫科志, 「20世紀初의 東亞局勢與中韓關係」, 『韓國學論文集』 第18輯, 2010.
- 孫豔姝, 「晚清中朝朝貢關係詳考」, 『史學月刊』 2011年1期.
- 王宏, 『朝鮮革命者在中國關內地區革命中的作用』,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10.
- 王萌, 『1885年中日〈天津條約〉談判始末』, 華東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7.
- 王琦, 『中國國民政府援助韓國獨立運動的緣起和發展』, 安徽大學 석사학위논문, 2007.
- 王如繪, 「〈江華條約〉與清政府」, 『歷史研究』 1997年1期.
- 王世新, 「韓國光復軍與中國國民政府關係試析: 以韓國光復軍征募三分處爲中心」, 『當代韓國』 2009年2期.
- 王世新, 『韓國光復軍在華東地區』, 廣西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7.
- 王曉影, 權赫秀, 「近代轉型視野下的中朝關係: 李鴻章與李裕元書信關係研究」, 『史林』 2013年3期.
- 王志強·劉楊, 「試論近代中韓關係的建立(1895~1899)」, 『長春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9年1期.
- 王志偉, 「巨文島事件對朝鮮半島地緣戰略地位的影響」, 『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3年4期.
- 魏兵兵, 「事與願違的援助: 國民政府與韓國光復軍之組建」,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年1期.
- 魏志江, 「光復以來韓國學術界對大韓民國臨時政府的研究述論」, 『朝鮮·韓國歷史研究』 第13輯, 2013.
- 魏志江, 「韓國獨立運動與中國廣東關係研究」, 『韓國學論文集』 第18輯, 2010.
- 魏志江, 「論大韓民國臨時政府與廣東護法政府的關係」, 『社會科學戰線』 2009年10期.
- 魏志江, 「論韓國獨立運動的主要團體、政黨在廣東的獨立活動」, 『東疆學刊』 2010年2期.
- 吳家奇, 『李鴻章和黃遵憲朝鮮觀比較研究: 以1882年之前爲比較研究中心』,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10.
- 武菁, 「抗戰時期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 『安徽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8年3期.
- 武雪彬, 『李鴻章的中日結盟觀』, 吉林大學 석사학위논문, 2008.
- 辛聖鳳, 『朝鮮人的滿洲移民史研究』, 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2013.
- 徐香順, 「試論朝鮮義勇隊的成立及意義」, 『黑龍江史志』 2013年19期.
- 徐香順, 『試論朝鮮義勇隊(軍)與中國人民的關係』,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14.
- 楊岸昭, 『論甲午戰爭中清日陸軍鏖戰平壤』,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08.
- 楊濤, 「袁世凱在朝鮮的外交活動述評」, 『新鄉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7年4期.
- 楊天石, 「中韓愛國志士的早期聯係」, 『史學月刊』 2007年3期.
- 楊亞運, 『中朝近代外交體制與理念漸進變化比較研究』,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15.
- 楊豔, 『朝鮮巨文島事件及清政府的對策』, 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08.
- 楊昭全, 「中國共產黨與朝鮮·韓國獨立運動(1921~1945): 紀念中國共產黨成立90周年」, 『朝鮮·韓國歷史研究』 第13輯, 2013.
- 葉春芳, 『美國與甲午戰爭』, 安徽大學 석사학위논문, 2010.
- 尤淑君, 「朝俄聯盟與袁世凱的廢王之計」, 『社會科學戰線』 2016年7期.
- 尤淑君, 「甲午戰爭後的中朝關係」, 『山東社會科學』 2014年5期.

- 喻靜,『中韓兩民族聯合革命運動史論:以廿世紀廿年代中國關內地區中韓聯合革命運動為例』,廣西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8.
- 詹德斌,「甲午戰爭以來的中韓關係:模式、趨勢和調適」,『韓國研究論叢』第27輯, 2014.
- 張弛,「近代中韓宗藩關係嬗變原因探析:建構主義的視角」,『韓國研究論叢』第26輯, 2013.
- 張慧娟,『論清朝對日本圖謀朝鮮的反應』,山東大學 석사학위논문, 2010.
- 張靖,『中日俄在朝鮮半島的較量:1860-1910年』,東北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0.
- 張靜,「朝鮮大院君被囚保定與中朝宗藩關係的變化」,『河北廣播電視大學學報』2016年第2期.
- 張靜·吳振,「清黃遵憲《朝鮮策略》與近代朝鮮的開放」,『南開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7年2期.
- 張磊,『“朴定陽事件”與中朝宗藩關係的變化』,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07.
- 張蕾蕾,「朝鮮義勇軍與韓國光復軍的抗日鬭爭考實」,『學理論』2013年3期.
- 張禮恒,「金允植、魚允中與“壬午兵變”的善後處理」,『近代史研究』2016年5期.
- 張禮恒,「李鴻章同意從朝鮮撤軍原因探析」,『廣東社會科學』2016年4期.
- 張禮恒,「李鴻章主持朝鮮外交事務的原因探析」,『江蘇社會科學』2015年5期.
- 張禮恒,「論清朝對朝鮮政策的轉變及評價」,『朝鮮·韓國歷史研究』第11輯, 2011.
- 張禮恒,「袁世凱與“朴定陽事件”」,『韓國研究論叢』第25輯, 2013.
- 張禮恒·王偉,「“朴定陽事件”與中朝之間的外交紛爭」,『當代韓國』2010年3期.
- 張衛明,「在宗藩體制與國際公法之間:晚清中朝秩序的重新建構」,『學術研究』2011年3期.
- 張曉輝,『試論19世紀末朝鮮對華關係轉型』,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13.
- 張曉剛·國宇,「“壬午軍變”前後的中日兩國對朝策略」,『武漢大學學報(人文科學版)』2013年2期.
- 張英傑,『張樹聲與中朝關係』,山東大學 석사학위논문, 2015.
- 張玉紅,「抗戰時期國民政府對韓國獨立運動派係矛盾的調處及其影響」,『東疆學刊』2009年4期.
- 張玉紅,『中國國民政府與大韓民國臨時政府關係研究』,延邊大學 박사학위논문, 2010.
- 張鍾月,『清代以來鴨綠江流域移民研究(1644~1931)』,東北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15.
- 趙佳鎔,『近代中朝兩國開港條約的比較研究』,延邊大學 석사학위논문, 2013.
- 趙娟,『論韓國臨時政府在中國的武裝復國運動:以光復軍在西安的活動為中心』,陝西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2.
- 趙欣,「巨文島事件與東北亞國際格局的演變」,『外國問題研究』2015年2期.
- 鄭繼永,「“紀念大韓民國臨時政府創建90周年國際學術會議”綜述」,『韓國研究論叢』第21輯, 2009.
- 周國瑞,『清朝與朝鮮司法合作和交涉研究:以1882至1894年在朝華商相關案件為中心』,山東大學 박사학위논문, 2016.
- 朱芹,「朝鮮義勇軍司令武亭將軍」,『軍事歷史研究』2009年2期.
- 朱芹,『體系與依附:李承晚外交獨立思想研究』,復旦大學 박사학위논문, 2012.

* 이 논문은 2017년 8월 21일에 투고되어,
2017년 9월 13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9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9월 29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Current Research Trends on History of Modern Sino-Korean
Relations(2006~2017)**

Son, Sungwook*

The aim of this paper is to look back on the progress made in the field of the history of Sino-Korean relations in the modern era as researched in Chinese academia during the past 10 years, and to consider future directions for development. Ever since the formal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modern Sino-Korean relations has been a field of active research in China. The past 10 years has seen the publication of many academic papers, wherein established academics who had actively pursued their research consolidated their previous findings and considered new directions of research. However, progress among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cs has been less evident. This contrasts with how active research has been in the study of Sino-Korean relations during the Ming and Qing dynasties – particularly in the Qing dynasty. This may be because the study of Sino-Korean relations remains tied to traditional perspectives and research paradigms, in addition to the lack of stimulus for new research due to the decreasing discovery of historical records.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mutual perspectives in the study of ‘history of relations’, and in view of how research on the history of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developed through active academic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there is a need to further reinforce such academic exchange for the purpose of advancing the study of the history of Sino-Korean relations.

[Key Words] History of Modern Sino-Korean relations, Reinforcement of Tributary System, Daehan Empir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History and Culture, Shandong University